

올 김장김치는 '金치'

배추 3~4포기 도매가 6,500원, 작년의 2.3배 가을태풍·잦은비 여파 채소값 강세 지속될 듯

가을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채소값 강세가 김장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채소값이 '금값'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가을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일대의 경우 태풍피해가 적지 않은데다 중개상인들이 포전거래(발매기)를 통해 산지가격을 올린 상태여서 김장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이 2일 발표한 '채소 관측 월보'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이달 상(上)품 10kg (3~4포기) 도매가격이 6천500원 수준으로, 작년 같은달 평균인 2천784원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평년(2002~2006년 평균) 10월의 4천742원보다도 37%나 비싼 수준이다.

같은 10월을 기준으로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10% 줄고 잦은 비로 생산량도 20% 정도 감소하면서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무 재배면적은 1천378ha(전국의 14.1%), 생산량은 11만256t(16.5%)이었으며 배추 재배면적은 2천70ha(14.4%), 생산량은 22만6천152t(15.9%)이었다. 해남농협 관계자는 "해남의 경우 정확한 재배면적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가을 호우로 인해 정식시기가 늦어진다든가 고령지 반입물량이 크게 줄어 중간상인들의 높은 가격에 포전거래를 해 당분간 무·배추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일 현재 해남지역의 포전거래는 전체 재배면적의 30% 정도 완료됐으며, 거래가격은 1평당(9~10포기) 6천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75~100%까지 크게 올랐다. 무값 역시 이달 이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의 이달 출하면적과 생산량도 배추와 같은 이유로 각각 5%, 6% 줄어 상품 18kg당 도매가가 작년동기대비 22% 정도 높은 1만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고추 역시 후기 작황이 좋지않아 생산량이 평년을 맞물면서 10월 가격이 9월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마늘과 양파도 태풍피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이달 값이 더 오르고, 대파와 쪽파값도 잦은 강우로 인한 출하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11~12월까지 동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역중소업황 "누구말 믿나"

중기중앙회-韓銀 10월 전망 정반대

광주·전남 기업의 10월 업황 전망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이 완전히 상반된 분석을 내보 혼선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2일 지역 106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10월 '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로 업황 전망을 조사한 결과

SBHI가 102.4로 전월보다 5.3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 중소기업의 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9월 104.9로 100을 넘어 뒤 이달에는 10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호전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일 발표한 319개 기업에 대

한 업황 전망지수(BSI)는 전월보다 하락, '업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의 경우 업황전망 BSI는 95로 전월(10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매출 전망(120→110), 생산 전망(108→104), 채산성 전망(95→81) 등 여타 항목 BSI도 모두 하락했다. 비제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업황전망 BSI는 88에서 80으로 크게 떨어졌고 채산성 전망 BSI도 94에서 81로, 자금사정 전망 BSI는 91에서 90으로 각각 낮아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주그룹 중장기비전

대주그룹(회장 허재호)은 2일 계열사 사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조선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비전을 발표했다. 대주그룹은 각 사업부문별 사업성과 성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계열사인 대한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업을 그룹의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의 골자는 대한조선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조2천억원을 투자, 해남군 화원반도 일대 140만평 부지에 초현대식 조선소와 엔진 후판공장 등 연관산업단지, 40만평 규모의 배후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주그룹은 지난 6월

조선업 중심 사업구조 재편

2011년까지 3조2,000억 투자... 배후도시 개발 2013년 年매출 7조원 ... 초대형 조선소 발돋움

대불공단에 선박용 블록제작 전문업체인 대한중공업에 준공한 데 이어 8월 해남조선소에 도크 1기를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 2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대주그룹은 제 1도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 연매출 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매출 2조원, 2011년 4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소 전체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2013년에는 연매출 7조

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조선소로 발돋움하게 된다. 매출을 뒷받침하는 수주 역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해까지 17만급 벌크캐리어 35척(28억달러 상당)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모두 50척 이상(45억달러 상당) 수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그룹은 조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자체 증자를 통해 자본금 400억원을 늘린 데 이어

내년까지 자체 증자 및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조선업 진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조선소 운영이 안정단계에 접어드는 2013년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연평균 5만여명의 고용창출과 9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박재영 대주그룹 부회장은 "기술 및 인력집약형인 조선업의 특성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방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남권 일대를 기존의 울산, 거제에 버금가는 조선 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막된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한 순천지역 기업 (주)파루가 '태양 위치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선보인 가운데 관람객들이 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목차 원료 100% 국산화

(주)아모레퍼시픽 대대적 품질 개선

(주)아모레퍼시픽은 설목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녹차 제품의 원료를 100% 국산화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품질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주)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일 한국기능식품연구원과 '설목차 안전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100% 국산 녹차를 사용한 현미녹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원료를 일부 사용하던 기존 현미녹차 제품은 생산이 전면 중단되며, 감자와 제주의 국내 직영단지에서 생산된 녹차와 현미를 100% 사용한 제품이 출시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10/3(수)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합니다

POWER SALE
2007. 10. 3(수) ~ 10. 14(일), 12일간 / 일부상품 제외

Life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현대백화점 광주점
POWER SALE
10/3(수)~14(일), 일부상품제외

- 30%**
- 3층 명품주방 **빈폴진** 20% (10/3~10/14, 일부상품제외 포함)
 - 3층 여성복주방 **A. 밀란** 20% (10/3~10/14), **오월의신부** 20% (10/3~10/31)
 - 4층 미용주방 **제니앤/오리지널리** 10%~14%, **이지엔** 20% (10/3~10/14), **블루앙파르** 10% (10/3~10/14), **이현경** ~20% (10/3~10/14)
 - 5층 일상주방 **갤럭시/로가디스/마야스트로/캠브리지/맨스티/바쏘/트레드클립/피에르가르망/란체티** 20%~40% (10/3~10/14), **닥스** 20% (10/3~10/14)
 - 6층 코트주방 **앙드레김골프/나나리피** 20% (10/3~14), **아놀드파마** 20% (10/3~10/14)
 - 7층 명품주방 **1492마일즈** 20% (10/3~10/14), **클라이드** 10% (10/3~10/14)
 - 7층 아동주방 **피에르가르망** 10%~20%, **엘르루몽** 20% (10/3~10/14), **모크베아비/켄지/플루독/알로트/소클라** 10% (10/3~14)
 - 7층 스포츠 **리복/르까프** 30~20% (10/3~14), **나이키** 20~10% (10/3~14), **컬레비** 40% (10/3~10/14)

영수증 행운대잔치

-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원 50%
-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50%
- 1000원 상품권 10만 원 50%
- 10만 원 상품권 1000원

기간: 10/3~10/14, 종료는 2007. 10/16까지 기음
조건: 기업 등 관내백화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70원 영수증을 수령한 고객 누구나 참여 가능
방법: 10/29(수) 백화점의 홈페이지 및 Hmall 홈페이지
당첨금 50% | 당첨자 발표시, 안내 | 문의: 506-0000